

LG화학, 글로벌 인재 확보 “박차”

김반석 부회장, 미국 출장에서 직접채용 ... 국내 R&D인력 확보도

LG화학 김반석 부회장이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미래 신 성장동력을 책임질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.

4월1일 LG화학에 따르면, 김반석 부회장은 최고인사책임자(CHO) 육근열 부사장, 기술연구원장 유진녕 부사장 등 경영진들과 함께 4월3일부터 미국 시카고에서 BC Tour(Business & Campus Tour) 및 Tech Fair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.

BC Tour는 비즈니스 리더의 해외 출장을 통해 현지 인재를 확보하는 활동을 말하며, Tech Fair는 R&D와 컨설팅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학술 세미나 형식의 리크루팅 방식을 뜻한다.

LG화학은 미국 대학의 학부생을 포함해 경영대학원(MBA)과 연구개발(R&D) 관련 글로벌기업 인재 30여명을 초청하고 해외 인재를 즉각 채용할 계획이어서 최근 국내기업들이 해외 채용행사를 대폭 축소 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.

김반석 부회장은 최근 임직원과의 대화에서 “경영위기 상황은 역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”라고 강조한 바 있다.

LG화학은 해외 인재와는 별도로 국내 우수 R&D 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고 있다.

나아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2009년 전체 채용규모를 확대해 상반기에 100여명의 인턴을 포함한 총 400여명의 신입 및 경력사원을 채용할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4/01>